의대생이 바라고, 추구해야 할 리더의 모습

제 성 경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6학년

리더란 무엇일까? 단순히 정책 결정과정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리더라고 함은 "결과는 함께 나누고, 책임은 나 혼자 지겠다" 는 마음으로 자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올해만큼 의료계의 여러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는 의사들의 집단 폐업,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으며, 이전에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의사들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진료실에만 앉아 사회와는 담을 쌓은 채, 환자의 진료에만 열중하던 전통적인 의사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리라는 것은 무작정 순종하며 기다리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노력해야 얻을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회참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새로운 리더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의대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폭넓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마인드 확립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유명한 말이 있다. 생각은 늘 넓은 곳을 바라보되,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그곳에서 든든하게 활동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대생과 일선 의료인들은 먼 곳을 바라보기 보다는 바로 자기 밑만 바라보면서 활동해온 감이 없지 않다.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된다. 과중한 수업부담과 시험스케줄 속에서 당장 닥친 일에 바쁘다 보니 신문한번, TV 뉴스 한번 제대로 볼 기회가 없다. "병" 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많이 배우지만 정작 사람을 효과적으로 대하는 "면담기술"에 대해서는 배워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뉴스에 둔감한 의사, 면담기술이 부족한 의사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자기에게 "닥친 일"외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잘 돌아보지 못하는 외골수가 되고 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최근 의료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내에 의사출신 관료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이웃 일본의 의약분업 진행상황만 비교해 보아도 자명해진다. 일본의 경우 의약분업은 임의분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패한 의약분업사례라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의약분업이 30여년에 걸쳐 철저히 준비되었으며, 지금도 점진적으로 진행중이다. 이미 70년대 의사들의 처방료를 5배 인상하여, 의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처방료만으로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약사의 임의 조제를 절대금지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집행만으로 자연스러운 의약분업의 기틀을 다질수 있었다. 일본 후생성의 추정으로는 2010년이면 100% 의약분업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약 수백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일본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보건 정책 담당기관인 후생성에만 약 140명에 달하는 의사출신 관료들이 일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생성 장관은 많은 수에서 의사출신이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내에 약사출신은 상당수 있지만 의사출신 관료는 거의 없을 뿐더러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다시피 하다. 우리나라 보건 정책이 어떤 곳의 입장을 대변할 지는 자명한 일이다.

의사가 보건 복지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낮은 공무원 봉급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의사협회에서 회비를 모아 정부관료로 들어가는 의사들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급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어떨까?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의사의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정부의 정책에서 의사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상승될 것이다.

물론 위의 방안은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어디까지나 이러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건 정책에 불만이 있는 의사는 많지만, 스스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방안을 고민하는 의사는 적지 않았나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참여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을 반성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의사와 의대생이라면 자기 주변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때로는 자신과 관련이 적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의대생의, 의료인의 리더쉽에 대해

의사라는 직업은 홀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 많은 직업이다. 예를 들어 당장 응급환자가 들어온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내려야 할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의사의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특히 올바른 리더쉽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너무나 길들여진 나머지, 아랫사람들의 복종을 당연시하여 강요하거나 혹은 얕보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병원내의 상대적인 약자집단에 더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 같다.

담임반에서 한 선배가 고등학교 동문회를 가면 특별히 할말이 없어서 의사 동문들끼리만 어울리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병원 내에서의 큰소리 치는 모습이 사회에 나가면 이내 수그러 들고

마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다.

의사는 사회성과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의사가 만들고 직접 경영하는 큰 병원에 취직하면 다른 곳보다 오히려 대우가 떨어지고 더 힘들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실제로 그러한 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사람을 "부릴줄" 만 알지 "다룰줄" 아는 의사가 적다는 소리일 것이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이라는 글을 예로 들어보자.

첫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둘째,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를 가져라.

셋째,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라.

넷째, 웬만한 남의 단점은 보아 넘기고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라.

다섯째, 웃음을 지으라. 그리고 인사를 밝게 하라.

여섯째, 고맙다는 말을 늘 하라.

일곱째,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잘 안된다고 느낄 때 상대방을 탓하기전에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라...(후략)

병원도 직장이라고 생각할 때, 실제 실습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동료, 선배, 선생님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 이것은 과거 환자에게 의술을 '베푼다' 는 시혜적인 입장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의료사회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전의 명령과 복종관계에서 벗어나 철저한 계약관계로 주고 받는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의식적으로라도 대인관계 경영마인드를 몸에 익히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실행해온 방법들인 것이다.

맺음말

최근 인터넷 의료사이트 벤처기업을 차리신 모 선배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분께서는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은 수재(秀才) 급인데, 그러한 잠재력을 사회로 내보내지 못하고 병원내에서만 안주하고 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면도 많았다. 어쨌든 의사의 사회참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들이 기존의 "사회를 모르는 사람" 에서 "사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계는 의사도 사회인의 일원이라는 보편적인 측면보다는 "의사사회는 일반사회와는 다르다" 는 의사의 특수성에만 몰두해온 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의료인, 그리고 의대생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의 리더쉽에서 좀더 넓은 부분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의사사회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보편성에도 부합하는 사람이 될것"

"사람을 부릴뿐만 아니라 다룰줄 아는 사람이 될것"

"단순한 보건정책뿐 아니라 일반 사회정책에서도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할것"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의사란 말이 정치적인 문제에만 민감한 의사란 뜻은 아닐 것이다. 주변의 작은 일에 둔감하지 않고 성실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특히 미래에 활동할 의대생이라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회속에서도 통용되는 진정한 리더쉽이 자연스럽게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